

로랑 풍소, 부르고뉴 대자연과 신기술의 절묘한 조화



“21세기의 신기술을 이용해 대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담기로 했다.”

언뜻 보면 신기술과 대자연이 대척점에 있는 듯 하지만 로랑 풍소 와인에 있어 신기술은 대자연을 담기 위한 허용한 도구다. 보수적인 프랑스 내에서도 지극히 고전적인 부르고뉴 와인인데 우주에서 온 듯한 회색 레이블에, 천연 코르크가 아닌 인공 마개다. 와인병에 내장된 근거리 무선 통신(NFC) 칩은 태그할 때마다 IP가 바뀌면서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게 해놨다.

◆ 대자연에 대한 존경…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에서

로랑 풍소 (Laurent Ponsot·사진)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대자연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라며 “자연이 실행하는 모든 것을 담아 가장 진정성 있고 순수한 와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에서 나온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스스로를 와인메이커(Winemaker)가 아닌 양조학자(Oenologist)라고 칭한다.

로랑은 “부르고뉴는 길이 70km, 평균 폭 1km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지만 1200



로랑 풍소 부르고뉴 블랑 퀴비 뒤 페르스 네쥬 2022, 로랑 풍소 뮤르소 퀴비 뒤 판도레아 2022, 로랑 풍소 부르고뉴 루즈 퀴비 데 페플리에 2022, 로랑 풍소 쥬브레 샹베르탕 퀴비 드 롤른 2022, 로랑 풍소 상볼 뷔지니 프리미에 크뤼 레 샤름 퀴비 뒤 티울 2018, 로랑 풍소 클로드 부조 그랑 크뤼 퀴비 뒤 세드르 2019.

/안상미 기자



개의 아펠라시옹(appellation·원산지 통제 명칭)이 있으며, 와인 생산자는 그보다도 많다”며 “바로 옆에 위치 한 포도밭도 특징이다

를 만큼 작은 플롯마다 나타나는 사소한 차이라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나쁜 포도로도 좋은 와인을 만들 순 있겠지만 많은 조작과 첨가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2024년엔 단 한 병의 와인도 만들지 않았다. 비가 많이 왔고, 날씨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자체 포도밭에서 키운 포도조차 모두 외부에 팔아 치웠다.

기억하시라. 행여 수십 년 후에라도 어디선가 로랑 풍소 2024년 빈티지가 보인다면 모두 가짜다. (로랑은 희대의 와

인사기꾼으로 꼽히는 루디 커니아완을 잡아내는데 공헌한 이들 중 한 명이다. 로랑 풍소 와인에 위조품을 방지하는 신기술이 많이 적용된 것도 그래서다.)

◆ 가장 부르고뉴답게… 가장 하이테크 적인

사실 로랑은 부르고뉴에서도 역사 깊은 가문 도멘 풍소(Domaine Ponsot)의 일원이다. 36년간 도멘 풍소를 몸을 담았다가 2017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메종 로랑 풍소를 설립해 나왔다.

떠날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지만 와이너리 명을 보면 답은 보인다. 부르고뉴에서 ‘도멘’은 자신의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로만 와인을 만드는 생산자를, ‘메종’은 여러 곳에서 포도를 사서 와인을 만드는 상인을 말하는 네오시앙 하우스다.

최근에는 도멘이 고품질 와인의 상징

처럼 됐지만 부르고뉴의 정체성은 네고시昂에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부르고뉴는 네고시昂의 역사가 굉장히 길고, 이들이 부르고뉴의 명성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이 가장 좋은 원단과 자재를 찾아 자신만의 고급 맞춤 의상을 만드는 오트 쿠튀르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적 기술 역시 오트 쿠튀르 부르고뉴를 구현하기 위한 부자재다. 와인 양조 과정에서는 이산화황이나 인공 효모나 효소를 쓰지 않기 위해, 병입된 이후에는 온도변화나 코르크 문제로 와인이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특히 와인과 동일시됐던 코르크 마개와 오크통을 신기술로 대체하는 일은 업계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크통을 대체하는 신기술은 리서치를 진행 중이다.

로랑은 “오크 배럴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고 와인 숙성 중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오크 배럴과 비슷한 밀도로 와인이 숨을 쉬고 일정하게 통제 할 수 있는 배럴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 오트 쿠튀르 부르고뉴…로랑 풍소 컬렉션

이제 오트 쿠튀르 부르고뉴의 로랑 풍소 컬렉션을 만나볼 차례다. 와인 레이블은 미래적인 회색빛에 나사(NASA)에서 따온 폰트로 되어 있지만 와인 이름은 자연에서 따왔다.

화이트 와인에는 꽃, 레드 와인에는 나무 이름을 붙였다. 별명처럼 말이다. 부르고뉴 세부 생산지가 어려웠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부르기도, 기억하기도 좋다.

로랑은 “별명같은 꽃과 나무 이름은 와인의 아로마나 맛의 특징이 아니라 지향하는 이미지나 떠오랐던 영감”이라며 “숙성 잠재력이 있는 레드 와인의 경우 깊이 뿌리내려 더 성장라는 의미에서 나무로 붙였다”고 설명했다.

‘로랑 풍소 뮤르소 퀴비 뒤 판도레아 2022’는 8명의 재배자가 15개 풀롯에서 생산한 포도로 만들었다. 보편적인 뮤르소를 대표하는 ‘유니버셜 뮤르소’가 지향점이다. 판도레아는 부르고뉴에서 자생하는 흰 덩굴꽃을 말한다. 풍성한 과실향이 나는가 하더니 입에서는 드라이하면서도 녹진하게 좋은 질감이 입 안을 파고든다.

로랑은 화이트는 물론 레드 와인도 새 오크를 쓰지 않는다.

‘로랑 풍소 뮤르소 루즈 퀴비 데 페플리에 2022’는 부르고뉴 피노누아의 정석을 보여준다. 페플리에는 포풀리 나무를 말한다. 잘 익은 과실부터 허브, 연필심 같은 미네랄 향에 부드럽지만 분명 존재감 있는 타닌이 산도와 균형을 이룬다. 기본급이지만 로랑이 추구한 순수함이 이런 건가 싶은 와인이다.

‘로랑 풍소 클로드 부조 그랑 크뤼 퀴비 뒤 세드르 2019’는 잘 익은 검은 체리와 꽃향, 감초까지 좋은 향수를 맡는 듯하다. 그랑 크뤼의 구조감을 가지면서도 과실은 우아하고, 산도는 생동감이 있다. 세드르는 삼나무를 뜻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메가 온리’ 2월 라인업 공개

밸런타인데이 겨냥 로맨틱 무비 서브컬처 애니 IP 등 총 7편 선봬

메가박스가 단독 콘텐트 브랜드 ‘메가온리(MEGA ONLY)’의 2월 라인업을 공개하며 극장 관람의 차별화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 로맨틱 코미디부터 애니메이션, 라이브뷰잉 무대 공연, 문학 원작 대서사, 다큐멘터리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의 작품을 한 달간 선보인다.

2월 ‘메가온리’는 벨런타인데이를 겨냥한 로맨틱 무비와 서브컬처 팬층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IP, 그리고 극장에서 만 체험할 수 있는 포맷의 공연 상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상영작은 총 7편으로, 취향 기반 관람 수요를 정조준한다.

포문은 4일 개봉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원’이 연다. A24의 신작으로 사후세계의 환승역에서 65년을 함께한 남편과 생전에 사별한 첫사랑을 동시에 재회한 여인의 선택을 그린다.

5일에는 기상천외한 액션 활극 ‘언더 닌자’가 관객을 만난다. 현실에 닌자가 존재한다는 설정 아래, 공식 닌자 조직



메가박스 2월 단독 상영작. /메가박스

과 탈주 닌자의 대립을 그린 작품으로, 만화가 하나자와 켄고의 동명 원작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8일에는 애니메이션 IP를 무대로 확장한 ‘기타로 탄생 게게게의 수수께끼’가 라이브뷰잉으로 상영된다. 2.5D 무대 공연을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형식이다.

문화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작도 합류한다. 13일 개봉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제77회 칸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으로 프랑스에서만 940만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이다. 알렉상드르 뒤파의 원작을 바탕으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구원과 재탄생으로 서사를 확장했다.

‘세계가 주목한 화제작’ 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

롯데시네마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세계가 주목한 화제작들을 미리 만날 수 있는 ‘2026 아카데미 기획전’을 진행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6년 아카데미 기획전’을 통해 ‘국보’, ‘그저 사고였을 뿐’, ‘리틀

아멜리’, ‘센티멘탈 밸류’, ‘시라트’, ‘씨너스: 죄인들’, ‘아르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주토피아2’, ‘햄넷’까지 총 10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올해 아카데미 주요 후보작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영화 팬들이 아카데미 수상 결과를 예측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며 작품의 감동을 미리 만끽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2관왕을 차지하며 평단의 극찬을 받은 ‘아르코’, 세이스피어와 아내 아네스의 이야기를 그린 ‘햄넷’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최초 공개된다. 정식 개봉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누구보다 빠르게 극장의 몰입감 있는 환경에서 명작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LG U+, 현대미술가 권오상 개인전 열어

LG유플러스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서울 강남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 틈 by U+’에서 현대미술가 권오상의 개인전 ‘권오상의 Simplicity: AI, 인간 그리고 예술’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 공간 속에서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경험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주제인 ‘심플렉시티(Simplicity)’는 단순함과 복잡함의 공존을 뜻하는 개념으로, 복잡한 기술 환경 속에서 명확한 경험을 지향하는 브랜드

철학을 예술적으로 해석했다.

권오상 작가는 다수의 2차원 사진을 해체·재조합해 입체 조각으로 완성하는 ‘사진 조각’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를 도출하는 AI의 작동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작가는 하나의 형상 안에 다양한 시점과 정보가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심플렉시티의 개념을 설명한다.

전시는 1층부터 4층까지 전관을 활용해 ‘잉태-탄생-환원’의 흐름으로 구성

되었다. 1층에는 ‘에어매스’ 시리즈와 릴리프 작품이, 3층에는 대표작인 ‘페오도란트’ 시리즈가 전시된다. 4층에서는 모빌 작품을 통해 조형 언어의 확장을 보여준다.

메트로 한줄뉴스



▲ 日 학생 자살 ‘역대 최다’…전체는 2만명 아래로

▲ 美루비오 “시진핑, 대만 무력침공은 역사적 과제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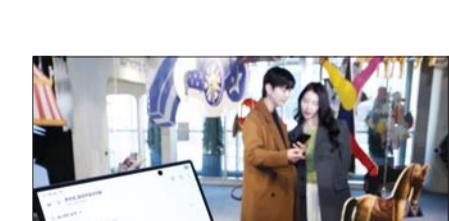
/사진 뉴시스

▲ 프랑스, 우크라에 연내 전투기·방공망·항공 폭탄 추가 인도

▲ 이라크 바그다드서 미국의 내정간섭 규탄 대규모 시위

▲ 프레티에 총 쏜 연방 이민단속 요원 2명 직무정지

▲ 美·덴마크·그린란드, 첫 실무회담…나토 역할 3자 관계 설정 협의



사진은 일상비일상의 틈 by U+에서 관람객들이 의시오 AI 도슨트를 이용해 권오상 작가의 전시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